

온실가스 배출 줄었지만 이상기후 극심

서울시, 선도적 감축 사업 추진

폭염·열대야·한파 일수 증가
제도 개선 건의... 민간사업 참여 ↑
건물 제로 에너지빌딩 건축 의무화

지난 13년간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파, 폭염, 열대야 같은 이상기후가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4944만 5000톤CO₂eq에서 2018년 4707만8000톤 CO₂eq로 4.8%(237만2000톤CO₂eq) 줄었다.

서울의 기후변화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폭염일수는 6일에서 35일, 열대야일수는 11일에서 29일, 한파일수는 6일에서 18일로 각각 5.8배, 2.6배, 3배 늘었다.

서울시 평균 기온은 1910년대(1911~1920년) 10.7도에서 2000년대(2001~2010년) 12.8도로 2.1도 상승했다. 시는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세기 후반인 2071~2100년에는 연평균 기온이 4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부amental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005년과 비교해 2018년 가정과 수송 부문에서는 각각 10.9%, 15% 줄어든 반면 상업건물 부문에서는 16.7%, 공공건물 부문에서는 13.2% 늘었다.



서울시가 몽골 아르갈란트 숲에 조성한 '미래를 가꾸는 숲' 모습. /서울시

시는 현재 정책으로는 탄소중립(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공부문에서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이끌기로 했다.

우선 시는 정부 계획보다 4년 앞당겨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물의 제로 에너지빌딩 건축을 의무화한다. 제로 에너지빌딩은 건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하고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물을 일컫는 말이다.

시는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로 에너지빌딩 시공시 취득세 감면을 기존 15%에서 30%로, 용적률 완화를 종전 11~15%에서 16~20%로 늘려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연 1~2회 인력점검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이행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작

년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등 특별 지역의 집중 관리를 위해 지역 계수 도입 등을 추진한다.

몽골 투브 아이막 아르갈란트 숲에 100ha 규모로 조성한 '미래를 가꾸는 숲'의 유지 관리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6~2020년 해당 지역에 10만여주의 나무를 심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수목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림지 유지관리 및 수익모델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회용품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안 쓰는 유통·소비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매장을 2021년 자치구별 5개소씩 125개소로 늘리고, 2025년에는 전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는 목표다. 시는 내년부터 다화용기 대여서비스 산업 육성·지원에 나선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시내 도로교통소통 개선사업 실시

신촌기차역 굴다리 등

서울시는신촌기차역 굴다리와대광고 교차로를 포함해 관내 24곳에서 도로교통소통 개선사업을 벌였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신촌기차역굴다리와대광고 교차로 등 14개소는 차로 신설, 좌회전차로 연장, 유턴신설을 통해도로의지·정체와 먼거리 우회로를 이용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촌역 철도건널목과 서빙고 북부

/김현정 기자

철도건널목을 포함 총 10곳에서는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해 사고위험성을 낮췄다.

강진동서울시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장은 "구청, 경찰서의 요청, 시민들의 의견, 자체 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도로교통소통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택지개발 등 주변 환경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무료' 용산Y밸리 입주기업 모집

전자상가 내 공실 빌려 리모델링

서울시는 2월 10일까지 '용산Y밸리 전자제조 지원센터' (가칭)에 입주할 35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센터는 용산전자상가 내 공실인 나진상가(10·11동)를 빌려 리모델링한 사무 공간이다. 임대료는 무료다.

SBA(서울산업진흥원), KEA(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전문기관의 기업보육 프로그램, 출장 상담서비스, 기술전문가의 컨설팅과 제조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 기업은 용산전자상가 내 코워킹스페이스인 '용산전자상가', 시제

품 제작소인 '디지털대장간', 하반기 구축 예정인 전자제조 지원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

입주 희망 기업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입주 대상은 ▲4차산업 및 전자제조 관련 창업 5년 미만 기업으로 자체 제품,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 20개 ▲창업 3년 미만으로 전자·IT·4차산업 개발 및 제조 관련 스타트업 15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드론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유치해 용산전자상가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변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내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700억 편성

생활 속 불편, 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상시 제안 가능
광역제안형, 참여 분야 18개로 늘려

서울시는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을 7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시민제안 접수 등 발굴 절차를 시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제안 대상은 생활 속 불편, 교통, 기후위기와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운영 사업 유형은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100억원 내외) ▲광역제안형(300억원 내외) ▲구·동단위계획형(300억원 내외)이다.

시는 올해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전용 예산 100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한다. 이 사업의 제안은 상시 가능하다. 제안을 바탕으로 열린 시민토론 결과에 따라 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숙의예산민관협의회(민주서울 분야) 의 결과 8월 말 한마당 총회 승인 후 내년 사업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 편익을 높이거나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의 경우 참여분야를 기존 10개에서 18개로 늘렸다. 심사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는 주제별로 분리·세분화한다.

광역제안형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돼 서울시의 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과정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자신과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제안하고 심사와 선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의 과정"이라며 "올해는 온라인 민주주의의 서울을 통한 전용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만큼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화재 진압한 '권유호 청년' 표창

초기 대처로 인명·재산 피해 막아

고양시는 지난 1월 20일 행신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직접 진압해 대형 참사를 막은 소방공무원 준비생 권유호 청년(21세)에게 고양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5시 시청 열린회의실에서 진행된 표창장 수여식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권유호 청년을 "1만 명 넘는 고양시민을 지킨 작은 영웅"이라고 칭하며 "이 표창장은 108만 고양시민이 드리는 상"이라고 격려했다.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곳은 총 29개동 3000세대가 거주하는 행신동의 대단위 아파트로 발화지점 근처에 도시가스 배관까지 있어 만약 초기 진압에 실패했다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



권유호 청년(왼쪽)과 이재준 고양시장

해가 발생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웃 주민의 외침을 듣고 달려간 권유호 청년은 먼저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아파트 내 소화전을 꺼내어 10분 만에 침착하게 불을 껐다.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화재진화 요령을 체득한 덕분이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김포시, 청년종합지원공간 재개장

'김포청년공간 창공'센터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동 등 청년종합지원공간인 '김포청년공간 창공' 센터를 지난 1월 21일부터 재개장했다.

김포청년공간 시설은 소모임실, 카페, 영상촬영실, 코워킹공간, 미디어실, 셀프의상드라이를 위한 스타일러 등 청년들의 니즈가 잘 반영된 김포시 청년 종합지원 활동공간으로 사우청년지원센터와 구래청년지원센터 등 2곳이 운영 중이다.

사우청년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오픈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온라인 프로그램을 먼저 준비하고 있다. 구래청년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송실을 갖추고 있어서 누구나 유튜브 촬영, 개인신상 영상촬영 등을 할 수 있다. 김포청년공간 창공은 만 19세~34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6 | 해질 / 17:56

2월 1일 (월)
음력 : 12월 20일

수도권 날씨
6 ~ 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3/9, 동두천 3/9, 가평 0/8, 파주 3/9, 서울 6/9, 양평 2/10, 수원 6/9, 용인 6/9, 백령도 5/6, 인천 5/7, 평택 4/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